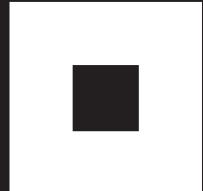


2021년
명륜동 작업실 결과보고전
부피, 빛, 리듬

2021. 11. 26 – 12. 18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목차

소개

- 4 사단법인 캔파운데이션
- 5 명륜동 작업실
- 6 명륜동 레지던시 2021 (사)캠파운데이션 김성희 기획이사

2021 명륜동 작업실 결과보고전

«부피, 빛, 리듬»

- 10 입주작가 3인전 윤수정 큐레이터
- 14 공동과 확장성 정소영 전시팀장
- 18 전시전경

- 78 작업실 방문 프로그램

- 92 작가 CV

사단법인 캔 파운데이션

캔 파운데이션은 민간차원의 예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7월 노동부로부터 기타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에 맞는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설립목적인 예술 창작지원사업으로 전시공간 〈스페이스 캔〉과 〈오래된 집〉, 예술가 창작활동을 위한 국내 레지던시인 〈명륜동 작업실〉과 해외 레지던시, 〈P.S.B.-ZK/U〉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가와 함께하는 사회공헌·예술창작체험 활동으로 아트버스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작가 발굴 및 창작 지원, 해외 교류 전시, 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문화 교류, 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획 통한 국내 미술계 창작 기반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캔의 예술가들과 문화나눔지역 아동 청소년들과 창의체험 프로그램인 아트버스캔버스를 운영함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도모한다.

명륜동 작업실

캔 파운데이션에서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이징P. S. in Beijing〉,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를린P. S. in Berlin〉에 이어 국내외에서도 새로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확보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결과 2015년 명륜동 작업실을 개관했다. 서울 중심 종로의 유서 깊은 동네인 명륜1가에 위치한 명륜동 작업실은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3인의 예술가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예술가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예술창작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전속작가제를 도입하여 레지던시 참여작가들에게 창작공간지원을 넘어서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캔 파운데이션은 2007년 시각예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자 한 3인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베이징 레지던시인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이징(P.S.BeiJng)'을 오픈하여 1년에 8인의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해 12월 성북동에 스페이스 캔과 이후 2010년 오래된집을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다. 2008년 6월 비영리 예술법인이자 사회적 기업으로서 전시와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통한 창작환경 지원과 지원받은 예술가들의 재능기부로 문화소외지역 대상으로 예술 체험교육인 아트버스 캔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필요했던 시기에 부응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캔의 예술창작지원 출발은 베이징 레지던시 프로젝트처럼 국내 젊은 예술가들에 대한 베이징 창작공간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캔 파운데이션 사업에서 레지던시 프로젝트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캔 파운데이션의 설립 배경이 한국 예술가들의 창작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당시 중국

개혁개방의 시작으로 예술 중심도시인 베이징에 해외 기관이나 예술가, 예술전문인들이 집결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시작되었다. 캔 파운데이션은 예술가들의 해외교류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베이징 헤이차오에 스튜디오를 시작으로 매년 8인의 예술가를 공모로 선정하여 창작과 교류의 산실을 마련했다. 2010년 전시 공간과 레지던시 공간을 베이징 따산츠 798 예술특구로 이전하여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따산츠 유입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시장화로 인해 임대료가 과중하게 상승하면서 비영리기관인 캔 파운데이션은 결국 공간을 닫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영역과 관심이 베이징에서 베를린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환경에 부응하여 2014년 캔 파운데이션은 베를린에 레지던시 'P.S.Berlin'을 오픈했고, 2014년 베를린 창작공간 ZKU와 MOU를 체결하여 프로젝트 스페이스 베를린을 통해 지금까지 118인의 한국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해왔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프로젝트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외 상황이 호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국내 레지던시 사업을 종로구 명륜1가에 창작지원 공간인 ‘명륜동 작업실’을 운영 중이다. 명륜동 작업실은 각각 66㎡(20평), 33㎡(10평), 23㎡(7평)로 총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3인 예술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며 각 예술가들의 작업 특성에 따라 입주 공간을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레지던시,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술가들에게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캔파운데이션은 참여 예술가들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레지던시 기간이 끝나는 12월에 외부 큐레이터와의 워크샵과 이후 보고전시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다.

명륜동 레지던시는 지리적 조건으로 예술가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며, 공모에도 매년 200여인이 넘는 예술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 경력이 많은 40대 예술가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올해 입주작가인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작가를 포함하여 18인의 예술가가 명륜동 스튜디오를 거쳐간 바 있다. 지금까지 캔파운데이션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 수는 총 126인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 외의 본업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 경우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예술가들은 입주 기간만큼은 작품 활동에만 몰두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캔파운데이션 레지던시 사업이 풀어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가에게 새로운 예술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그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미술계와 대중을 포함한 워크샵, 토론... 이런 프로그램일 수 있을 것이다. 캔파운데이션 스텝들은 그 과제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모색하고 있다.

입주작가

3인전

윤수정 큐레이터

캔 파운데이션은 2021년을 마무리하는 전시로 명륜동 작업실 입주 작가들의 결과보고전을 마련하였다. 2015년부터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온 명륜동 작업실은 벌써 6년째를 맞이하는 레지던시 공간이다. 올해 명륜동 작업실에 입주한 세 명의 작가, 김세은(1989-), 안상훈(1975-), 최수정(1977-)은 공교롭게도 모두 회화 작가들이다. 같은 장르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세 명의 작가들이 조금 더 부드럽게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해에는 워크숍, 외부 전문가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며 구체적으로 공유된 목표가 다름 아닌 이번 결과보고전이다. 작가들은 명륜동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서로 다른 각자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며 작업을 이어왔다.

현실의 감각을 순수한 조형 요소로 옮기는 김세은 작가는 오로지 색채와 물성, 필치만으로 화면 위에 지속적인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고조되는 에너지들이 평면 안에서 마치 움직이는 듯 보이는 작가의 추상은 작가가 공간과 풍경 안에서 감각된 덩어리와도 같은 이미지를 봇질로 체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도 작가가 경험한 온라인상의 공간,

일상의 풍경에서 만나는 터널 혹은 지하의 공간, 우리 신체 내부의 공간 등 자신을 둘러싼内外부 공간의 이미지들을 감각한 결과물이다. 작가는 모호한 상태로 있는 이미지들을 작가의 살아있는 신체적 행위를 통해 평면 위에 붙잡아 놓는다.

안상훈 작가는 최근 스마트폰 사진첩의 삭제된 이미지 일부를 캔버스에 옮겨 확대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작업을 시작한다. 그는 일상에서 버려진 찰나의 순간을 캔버스 위에 재소환 시켜 1차 레이어로 활용하고, 그 위에 선과 색, 작가의 제스처를 덧입히는 작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나타난 추상의 이미지는 원본의 맥락과 멀어지지만, 또 다른 언어 혹은 서사와 연약하게 관계한다. 작가에게 이미지는 단순히 정지해있는 장면이 아니라 이질적인 개념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소멸하고 다시 또 생성하는 어떠한 주기를 가진 유기물과 같아 보인다. 그리고 작가는 계속해서 회화를 통해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한다.

캔버스에 물감으로 형상을 표현하고 그 위에 자수를 놓는 작업방식을 이어가는 최수정 작가는 이를 통해 회화의 주제와 형식적인 측면뿐 아니라 재료가 발화하는 현상까지 살핀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RGB

컬러에 기반하여 식물을 그린 회화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가 화면에 그린 구체적인 대상은 식물이지만, 빛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형광의 색채와 식물 형상에 직조된 자수가 반사되는 효과는 빛에 대한 작가의 관심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 같은 표현 방식을 지속하며 작가는 관찰한 대상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점차 벌린다. 작가는 그리기 전후로 발현되는 감각과 심상, 그가 감지한 회화의 본질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린다.

이처럼 세 명의 작가는 스스로의 안과 바깥을 끊임없이 오가며 화면을 구성한다. 작가들은 각자의 몸으로 세계의 모양을 감각하고, 이를 내면의 공간 안에서 변주시켜 물질을 동반한 시각적 기호로 조형화한다. 이렇게 구성된 화면은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지 않고, 언어화되지도 않아서 보는 이에게 어떤 것을 보도록 명료하게 지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가의 봇질은 화면 안에 부피를 만들고, 캔버스 위 색면은 그 너머의 빛을 함축하며, 작가의 몸짓은 조형적 질서와 리듬을 창조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들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감각과 인식을 체현하고, 또 다른 차원의 비가시적인 세계에 다가선다. 작품을 보는 이들이 그 세계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면, 치열한 일상의 시공간에서와 다른 무엇인가를 느낄 것이다.

공통과 확장성

2021

명륜동작업실

결과보고전

«부피, 빛, 리듬»

정소영 전시팀장

작가에게 작업실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나의 집'을 내가 거주하는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 것 처럼 작업실은 단순히 작업을 하는 공간을 넘어서 창작의 시작이자 근원이 되는 공간이다.

외부적으로는 작업실을 오가는 주변의 풍경, 내부적으로는 작업실 내 캔버스나 설치물이 걸리는 벽과 바닥의 면적, 작품의 실질적 사이즈를 규정하는 입출구의 사이즈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작가의 작업실은 완성된 작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발견하는 희열을 안겨준다. 때문에 매번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작품에 반영되었을 이면의 변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내포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오픈스튜디오를 함께 진행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동일한 공간안에서 탄생했을 작가들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품을 통해 찾아내는 것도 레지던시 결과보고전만의 묘미가 또 아닐까.

2021년 명륜동작업실 입주 작가는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작가다. 이례적으로 3명 모두 회화를 하는 작가들로 구성된 2021년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은 회화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작가적 시도와 시선, 행위들을 작가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시명 <부피, 빛, 리듬>에서 부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은 작가의 2021년 작품들은 이전 작업이 주변의 건물이나 도로, 특정 풍경을 지날 때의 감정들을 담아내었다면,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와 작가의 몸 안에서의 실험적 시도들이 엿보인다. 캔버스에 담기기 전까지 작가 스스로가 생각했을 수 없이 많은 고민들이 무색하게 망설임의 터치감도 없는 과감한 선은 작가가 말하는 또 하나의 실험적 시도인 물성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작가의 힘의 강도와 함께 느껴진다. 덩어리지는 그림체의 구조 때문에 부피라 말하였지만 리듬감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김세은의 작품은 또 한번 발전된 형태로 관객에게 작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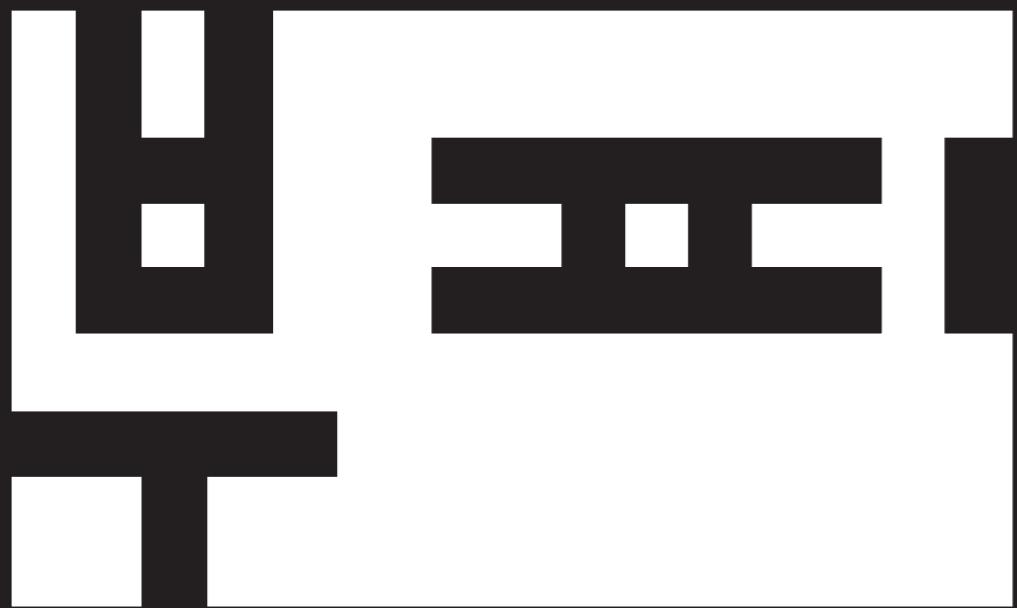
전시의 리듬을 담당하고 있는 안상훈 작가의 작품을 처음 마주할 때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작품이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작가 스스로도 작품과 이미지가 포화인 현실에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적 질문에서 형상을 없애고 조형적 형태만 남겨 그 자체를 표현한 작업이라 이야기 한다. 그래서인지 언뜻언뜻 보이는 사라지기 이전의 구상은 그림에 서사를 더하고 지워진 흔적 안에서의

의미를 찾게 한다. 악보의 음표처럼 보이는
붓의 터치로 만들어진 둥글고 긴 선들은
캔버스 안에서 운율을 만들고 아래에서 위로
켜켜이 쌓여가는 물성의 두께만큼 화음을
완성해 더해진 작품의 제목으로 시를 연상케
한다.

작품의 형상이나 구도에 따라 같은 평면
회화여도 감상의 거리가 달라지곤하는데
애너그리프(anaglyph)방식처럼 보이는
최수정작가의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한발
뒤에서 봐야 제대로된 형상이 감지된다.
태양광의 조명 아래 놓인 식물원을 연상하게
하는 작품은 형상이 없는 빛을 받아 성장하는
식물의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대상을
화폭에 끌어 담는다. 캔버스에 자수를 놓는
것이 특징인 최수정작가는 그런 빛의 표현
수단으로 반사되는 부위에 여김없이 자수를
놓았다. 작가는 회화적 환영 위에 놓인 표면적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화폭과의 거리, 캔버스
표면의 질감 등 관객이 시각예술을 감상할
때의 모든 시각요소를 다 활용하게 한다.
세밀한 세밀에서도 느껴지는 작가의 면밀한
생각의 깊이와 감상적 태도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화폭을 통해 전해진다.

동일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발생한
작가들의 작품을 바라보며 명륜동작업실

이후, 작업실 그리고 작가와 그 주변의 변화가
지금의 작가들에게 또 어떠한 영향으로
표현될지 레지던시의 본 목적을 살려 작가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전시가 되기를
바래본다.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2021. 11. 26 – 12. 18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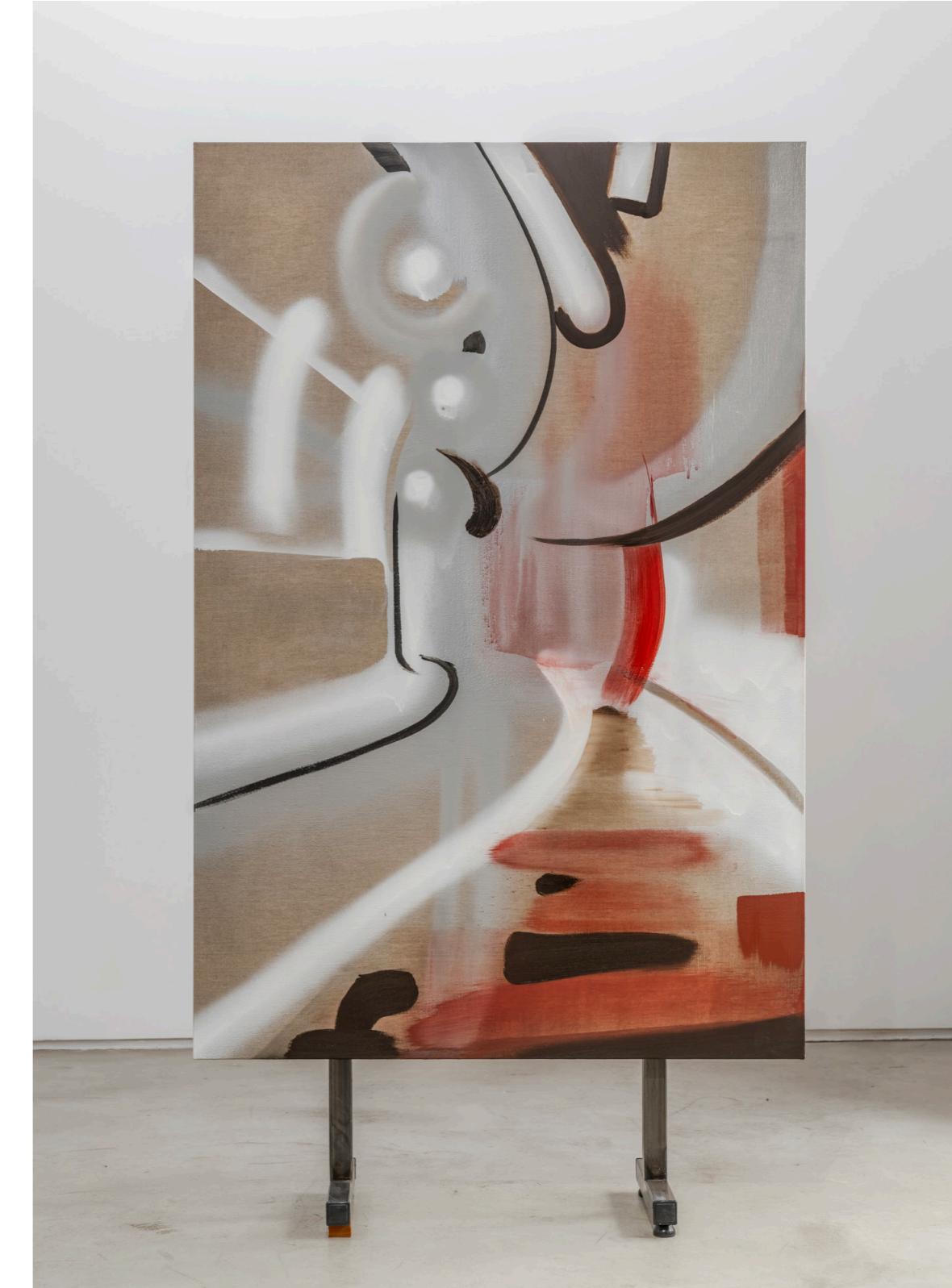
김세은, <Pit Generation>
162 x 130 x 3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 2020





23

김세은, <터널의 입>
120 x 100 x 3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와 아크릴,
2021(왼쪽)



김세은, <터널의 꼬리>
120 x 80 x 3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와 아크릴,
2021(오른쪽)



김세은, <Under the flyover>
105 x 85 x 3cm,
キャンバス에 수용성 유화, 2020

김세은, <콧대>
41 x 32 x 2cm,
종이판넬에 수용성 유화, 2020



김세은, <느가슴3>
53 x 41 x 2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와 아크릴,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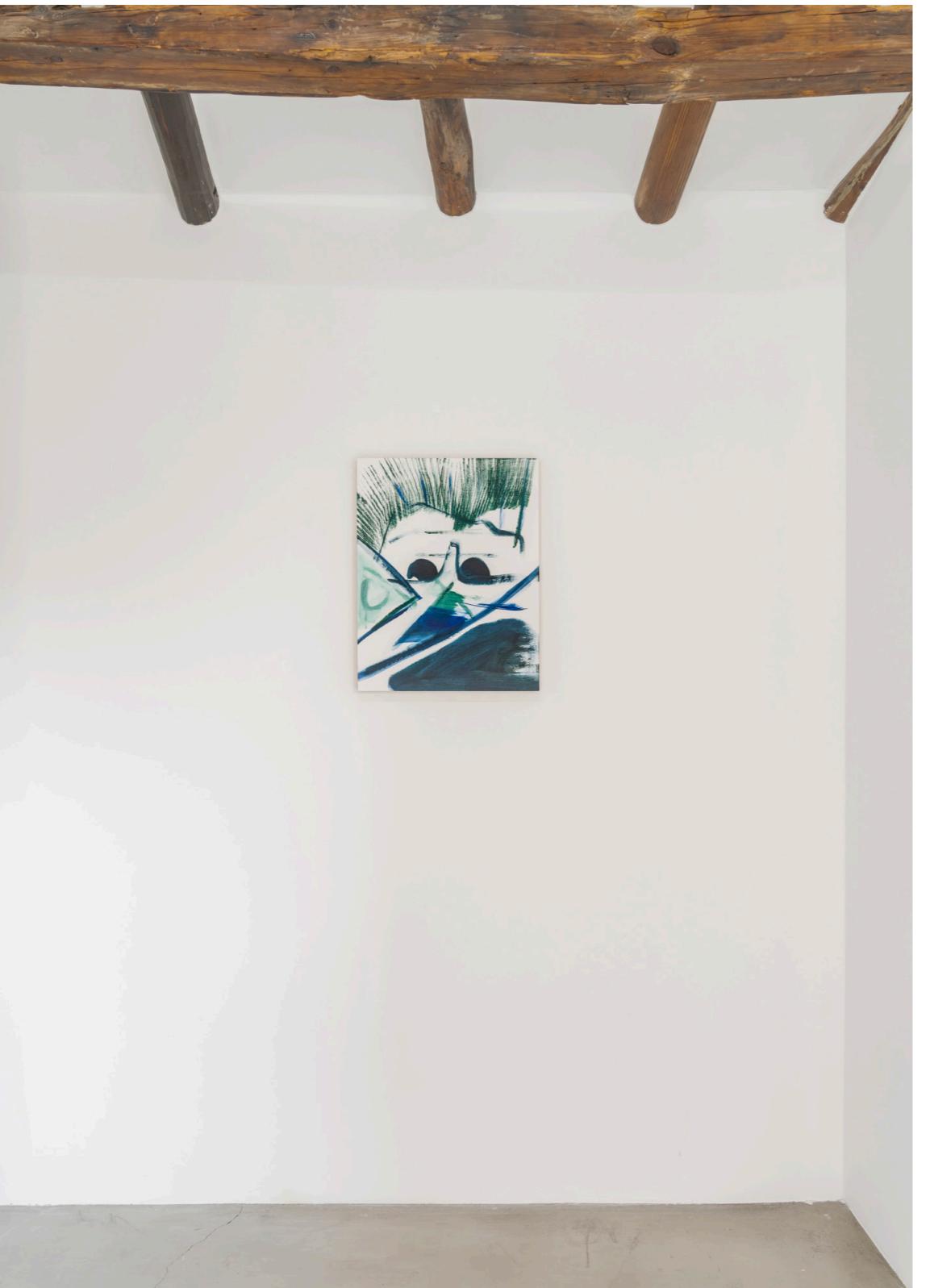
김세은, <개이빨>
40 x 30 x 3.5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와 아크릴, 2021



김세은, 『Long shoot』
145 x 220 x 3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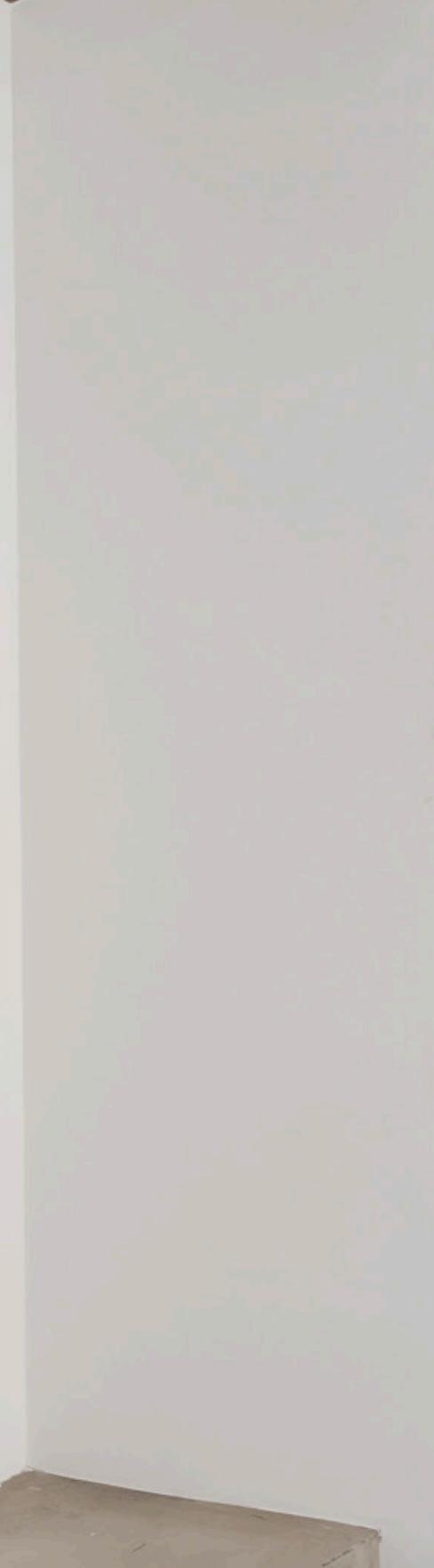
김세은, <가오리 훌>
117.5 x 161.5 x 3cm,
캔버스에 수용성 유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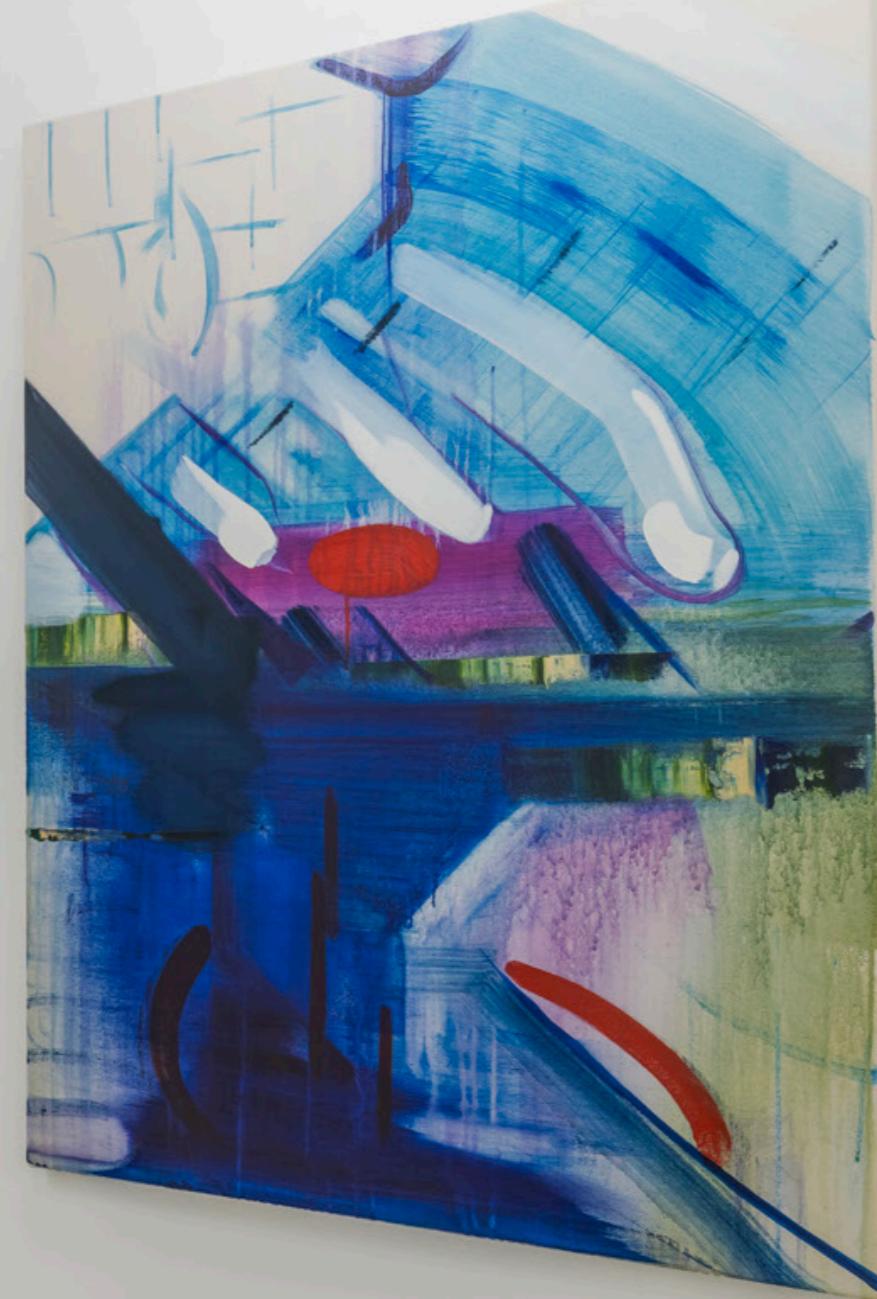


김세은, <콧대>
41 x 32 x 2cm,
종이판넬에 수용성 유화,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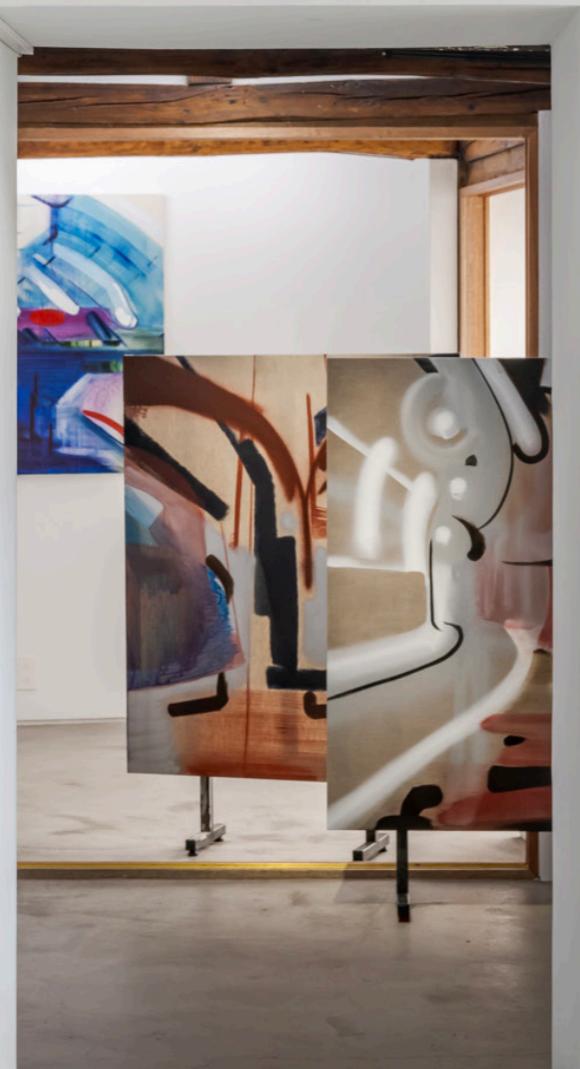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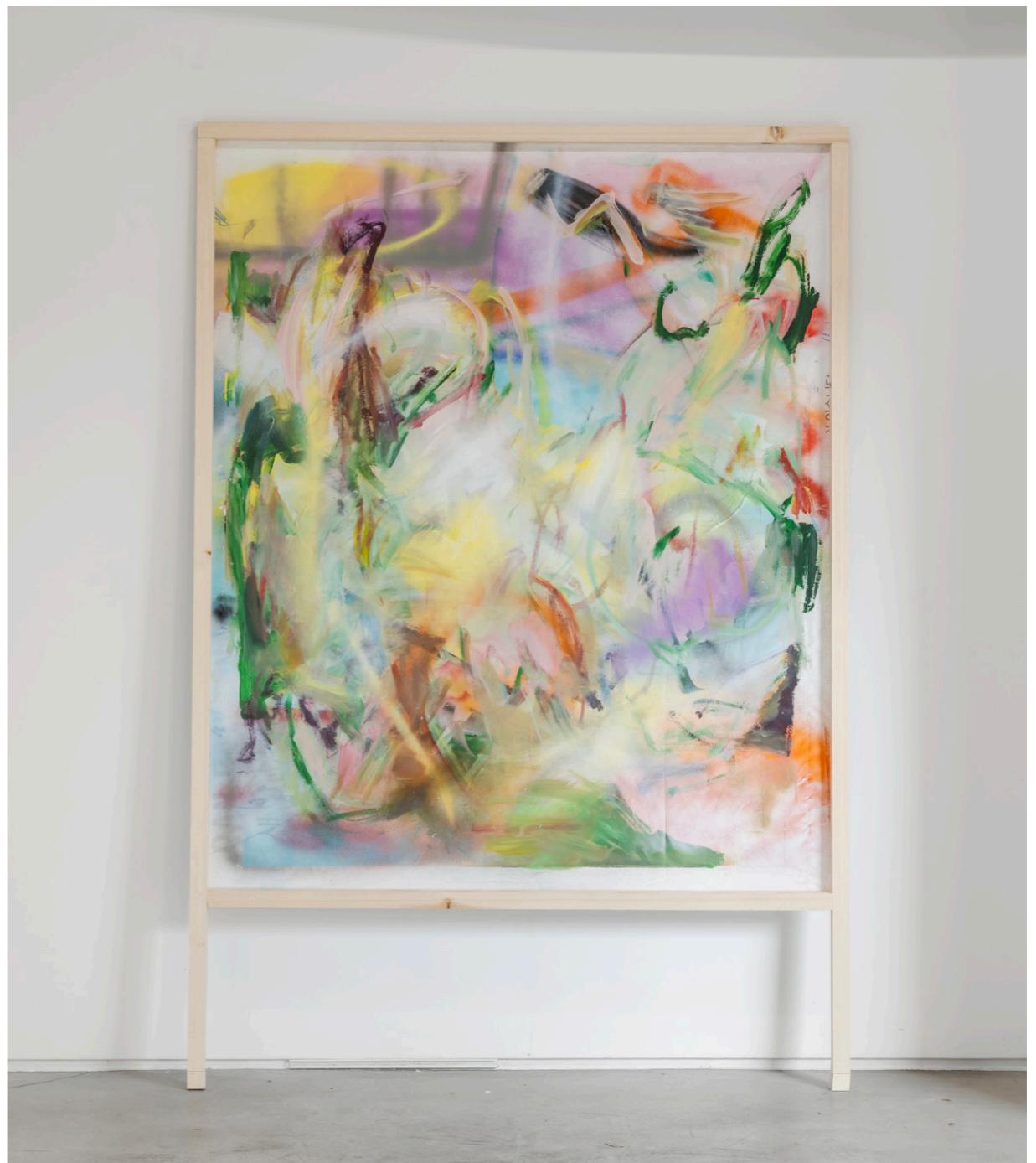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안상훈, <아침 식사대용(breakfast substitute)>
mixed media on banner,
130x105cm, 2021



안상훈, 〈보리밭 축제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
oil on linen, 162x130cm, 202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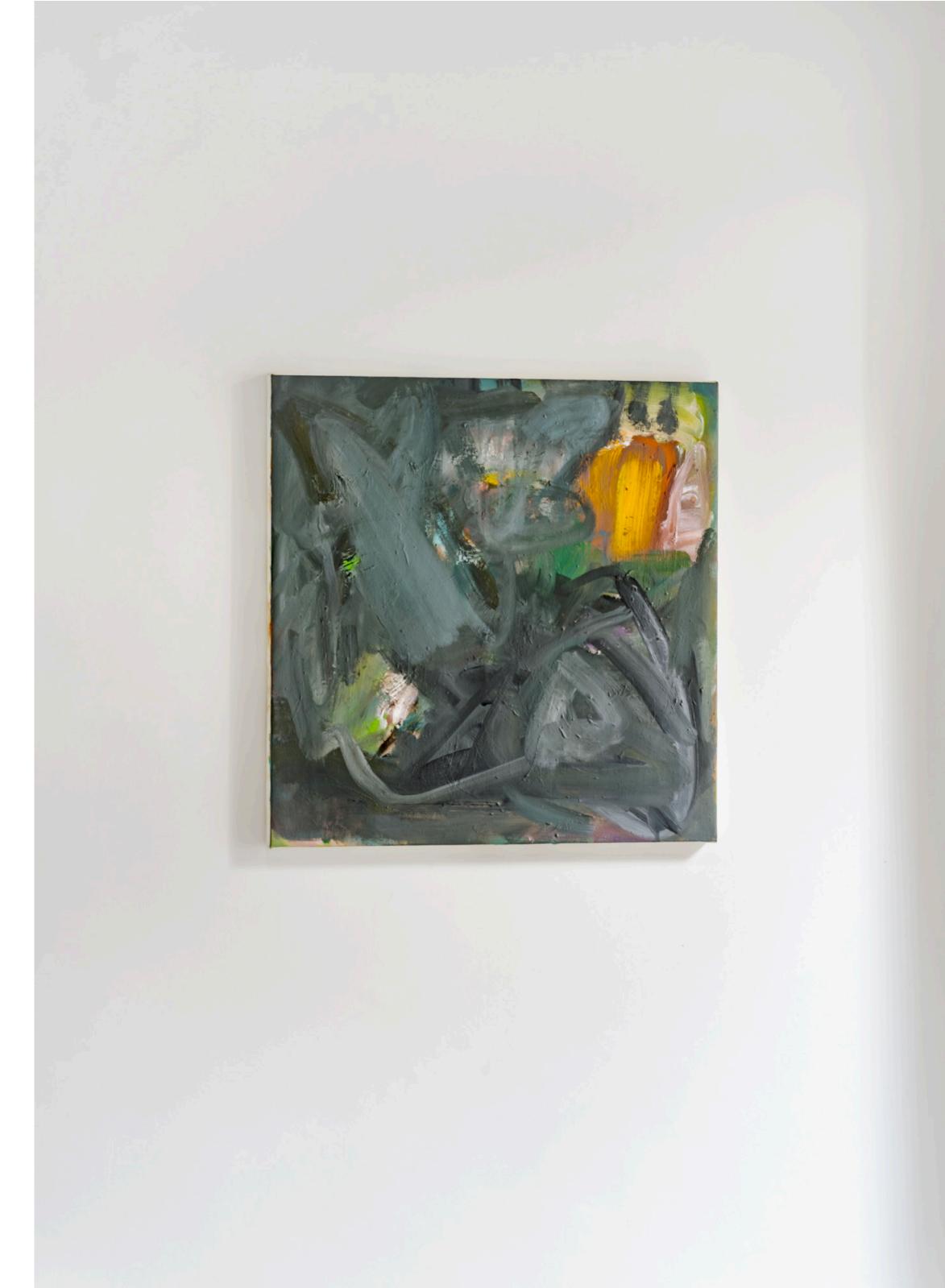


안상훈, 〈소금에 절인 양배추(sauerkraut)〉
watercolor and oil on linen, 162x130cm, 2021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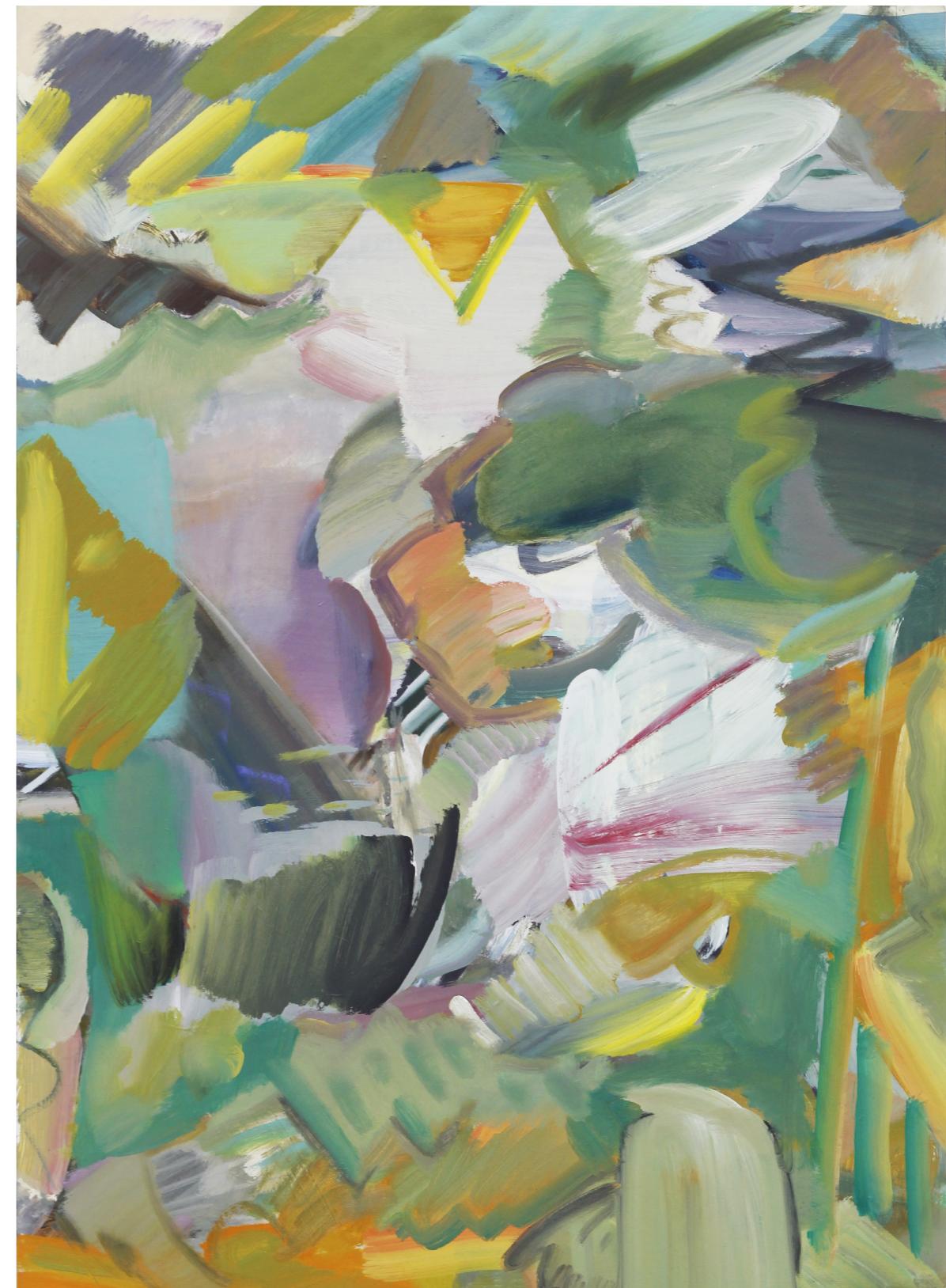
48
안상훈, 〈multi touch〉
acrylic and oil on canvas, 190x190cm, 2021



49
안상훈, 〈촌스러운 로봇 (a rustic robot)〉
oil on canvas, 46x46cm,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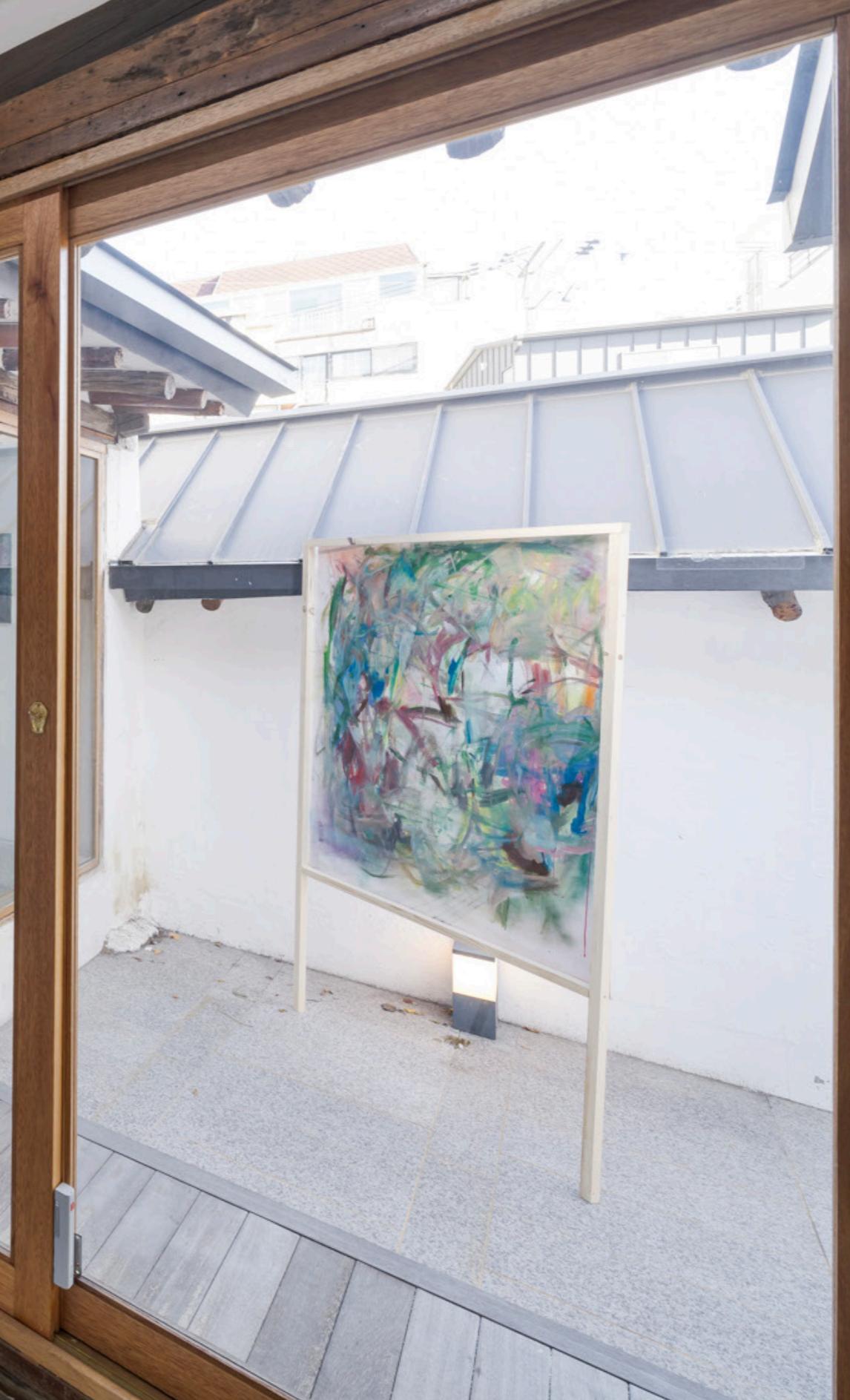
안상훈, 〈The Future of The Written Word(쓰여진 단어의 미래)〉,
54x39cm, Mixed Media on Paper, 2018



안상훈, 〈SIMPLY WISH〉, 54x39cm,
Mixed Media on Paper,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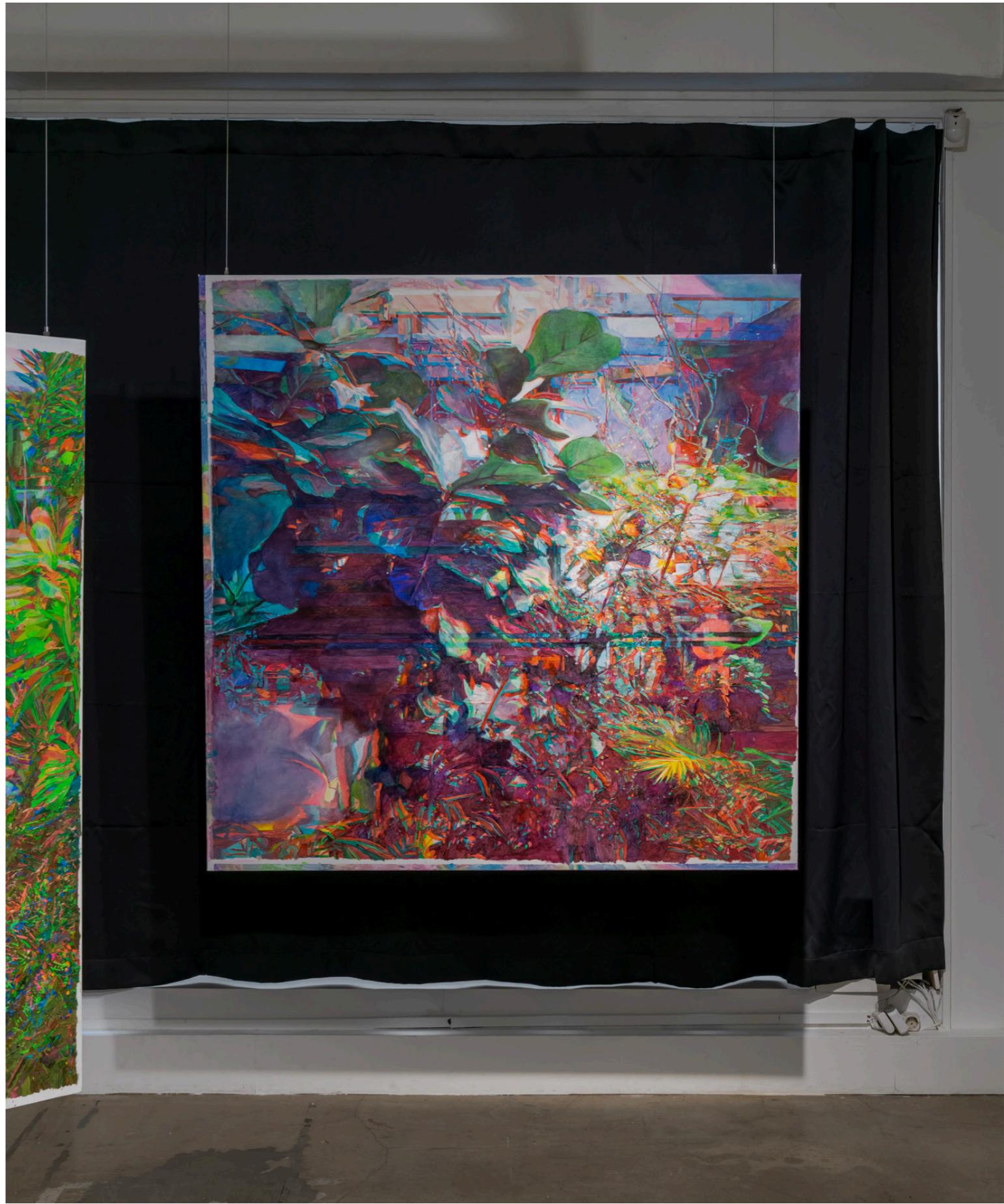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



최수정, <굴절 refraction 02>
150x15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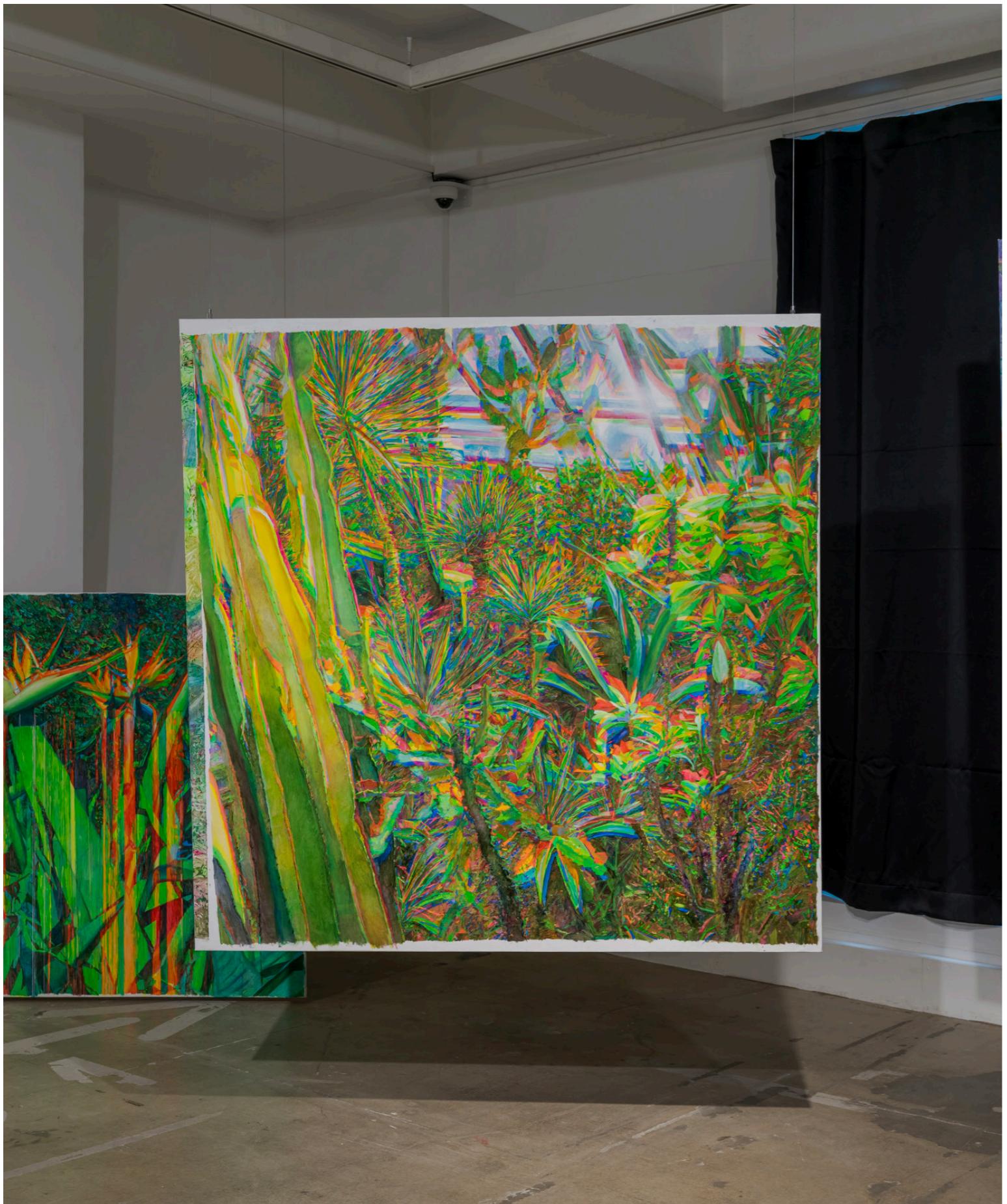
최수정, 〈현기증 nausea〉
150x15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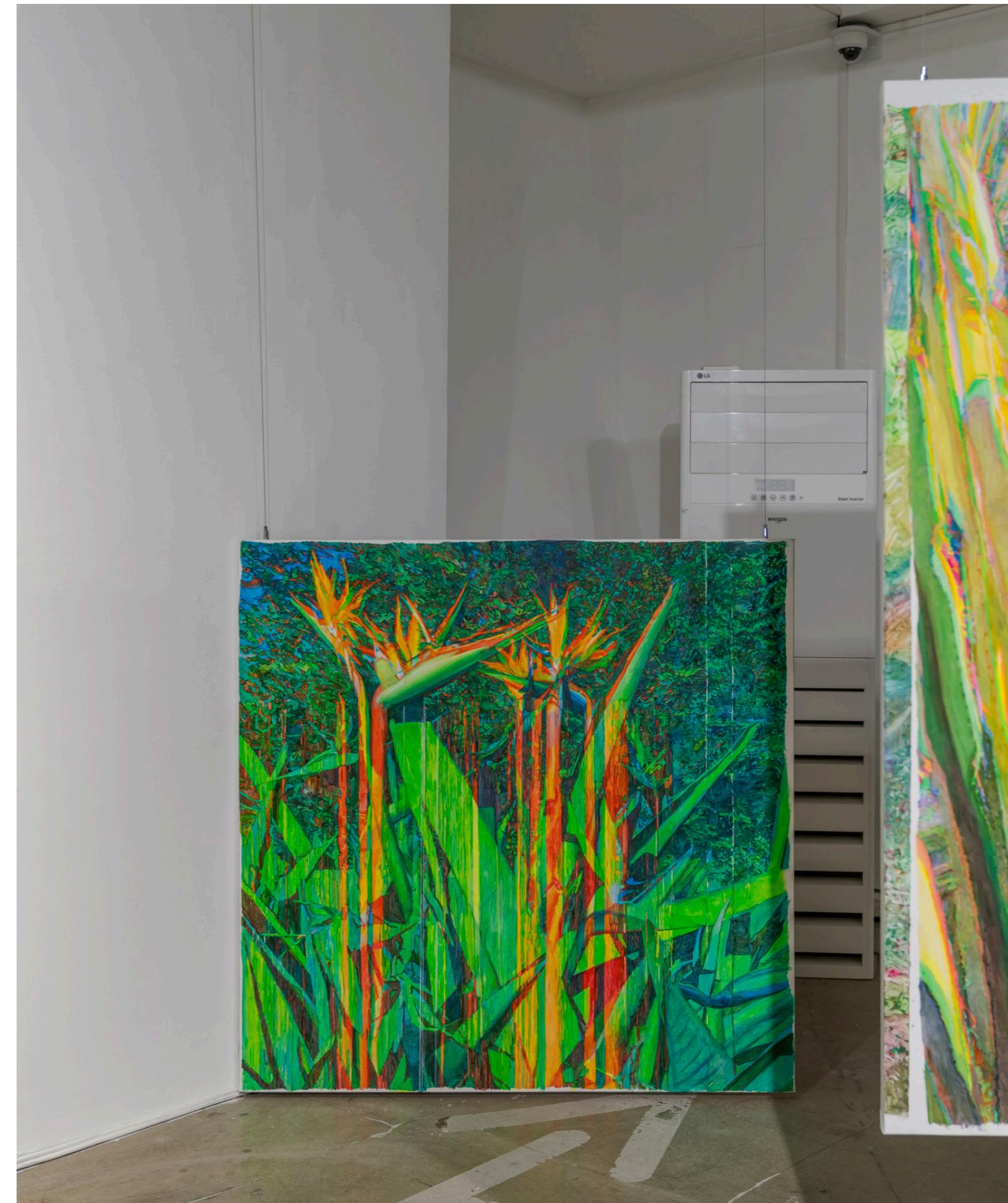


최수정, 〈알바트로스〉
110x11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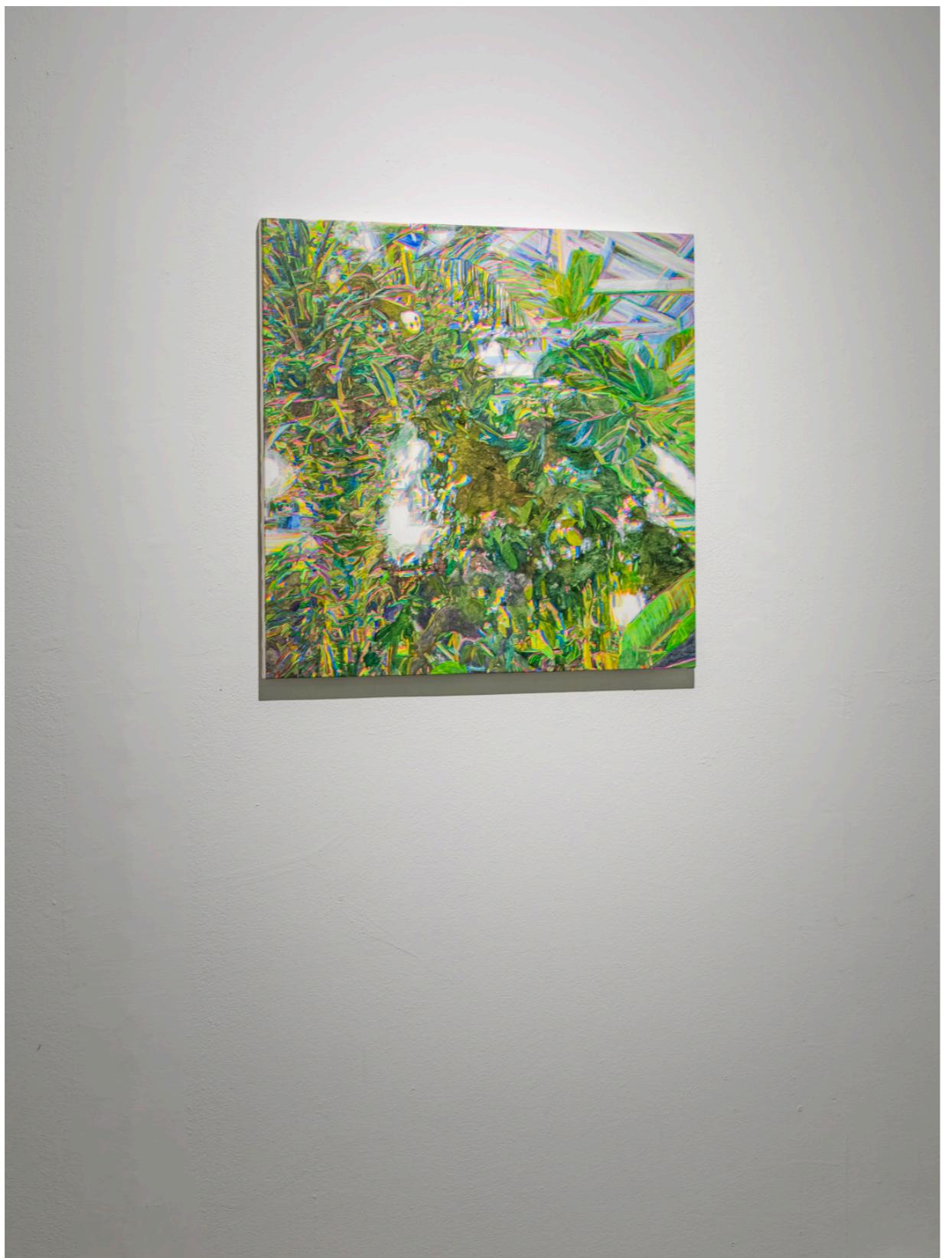
63



최수정, <굴절 refraction 03>
150x15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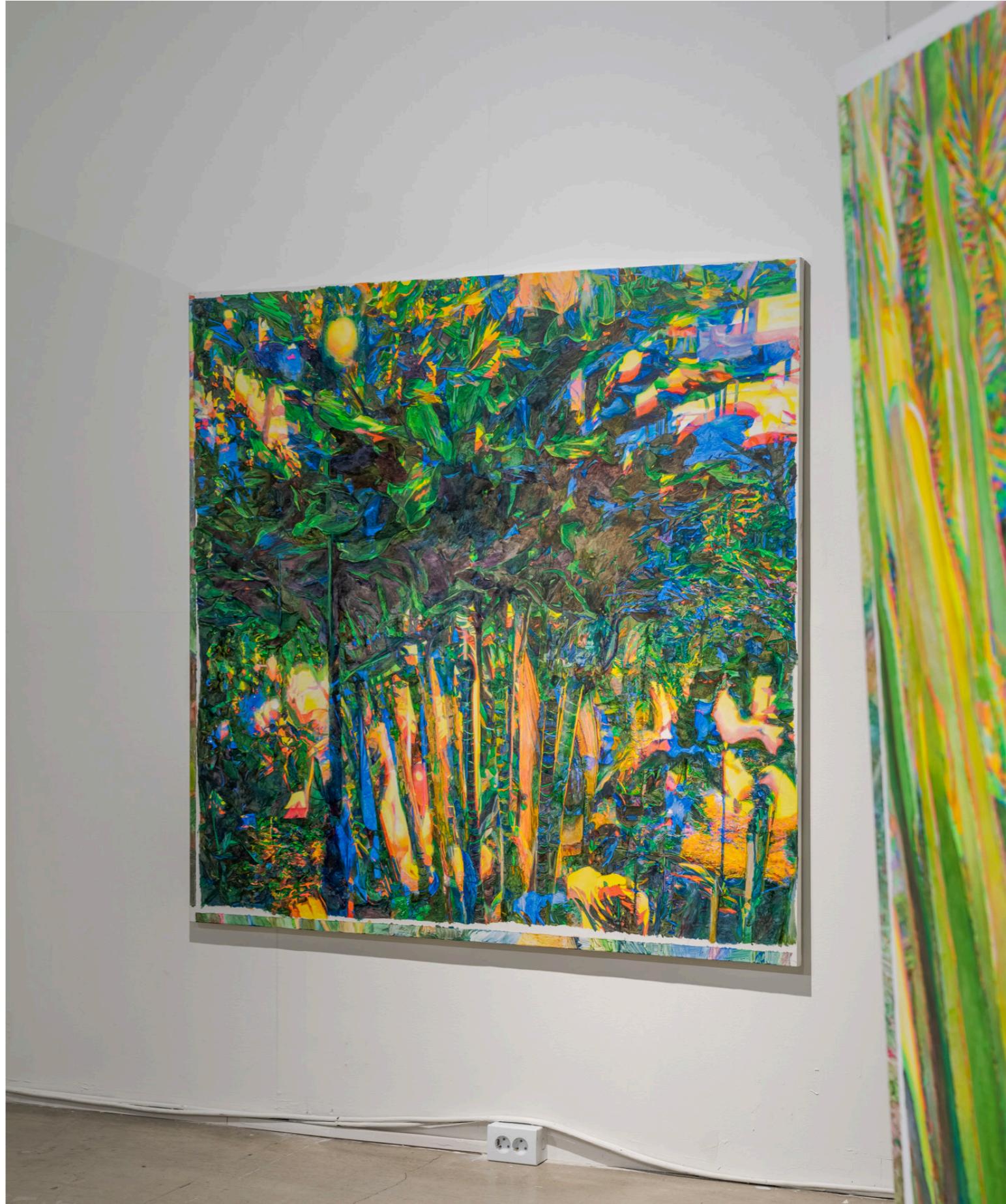


최수정, <굴절 refraction 04>
130x13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1



66

최수정, <굴절 refraction 05>
72.7x72.7cm, acrylic on canvas 2021



67

최수정, <굴절 refraction 01>
150x150cm, acrylic and embroidery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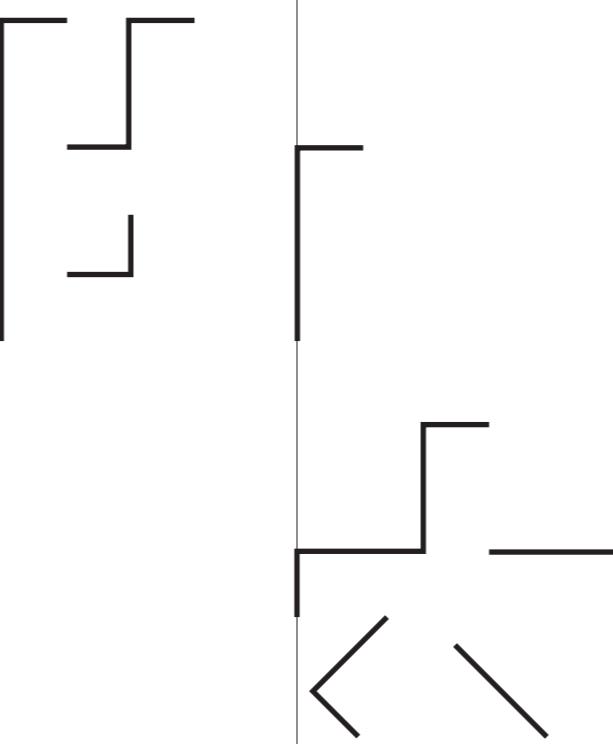












2021. 10. 30

명륜동 작업실

스튜디오

방문

라운드 테이블

참여자: 김세은 작가, 안상훈
작가, 최수정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옥
학예사, 캠퍼운데이션
정소영 전시팀장,
캠퍼운데이션 윤수정
큐레이터

정소영 전시팀장: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다들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윤옥 학예사님
모시고 작가님들의 작업 공간을 둘러보고 편히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회화 장르와 매체에 대한
주제, 각자의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학예사님 말씀
시작해주시겠어요?

회화 매체를 중심으로 한 작가들의 작업 세계

김윤옥 학예사: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기관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디어 안에서도 또 다른
미디어 기술에 기반한 작업이, 생각보다 예전 기술이나
실험을 넘어서는 아주아주 퀄리티가 높은 기술들을
수련하시는 미디어 작가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미디어 자체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미디어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미디어는 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회화를 매체로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지속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런 회화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전시들이나 실험을 더 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세은 작가: 저에게는 이미지 언어가 생각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할 때에 말투가 나오는
것처럼 회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언어로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나 감각, 그리고 판단,
결정 등 신체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신도시에서 자랐는데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영향이 컸어요. 도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도시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공간이나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했고 그 사이에서 상상하고,
추상적인 장면을 머리 속에 떠올리고 시각적
장면으로 만드는 시간을 통해 나의 환경을
보았던 거 같아요. 저는 늘 제가 속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변화해 왔는데,
지금이 기술의 시각 언어가 발생시킨 공간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공간을 감각하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안상훈 작가: 저도 회화가 평면이지만 공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한
측면에서 매체라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조형 작업, 설치작업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요. 회화도 어느 공간 안에서, 작업실 안에서
작가가 마주했을 때와 그리고 전시회라는 공간
안에서 보이는 회화는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미지를 고대로 옮기기보다는 사실 우리 눈들이, 김세은 작가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런 이미지들은 어떤 영향들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려는 제스쳐(gesture)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회화는 아마 도구로서 가장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재미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정 작가: 지금은 무수한 매체들이 이미지 생태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매체보다 회화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일단 제 취향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회화는 긴 역사성, 신체성과 개인의 서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점들이 좋아요. 회화장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시간성, 회화의 표면이 보여주는 축적된 개인의 신체적 시간성이라는 것이 영상이나 사진 같은 매체와는 그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림을 통해 관객은 그 화가가 표면을 통해서 어떤 선택들을 했을 지, 궁극적으로 이 선택들이 지향하는 종합적인 심상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며 얼마만큼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질문들은 작가가 그림을 만들기 위해 지나온 축적된 시간을 관객과 공유하게

만들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그 신체성을 갖는 표면으로 들어가 공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작가의 신체성을 드러내는 흔적들이 캔버스의 표면에 쌓이게 되면 그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든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회화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김윤옥 학예사 :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게 제가 공감하는 점들이 있고, 특히 회화의 가능성에 대해 최수정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제가 공감을 하는데 그 즉각적인 영상이나 설치작업들이 아닌 회화가 가진 시각성과 회화가 가진 서사를 작가가 가져오는 과정성을 관객이 가져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미디어 시대의 어떤 인지 방식에 역행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방식인데 방식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업을 하고 보는 저희나 관객에게도 가능성은 가장 어떤 미술의 가장 큰 가능성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 시간성을 추적해가는 과정과 서사를 추적해가는 과정들이 가지는 힘 자체가 회화의 가장 큰 힘이고 그런 회화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많은 풍부한 많은 비평 언어나 전시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동시대 회화에 관한 담론의 필요성

정소영 전시팀장: 사실 저도 회화라는 장르가 특히 전문성을 쌓는 기관에서는 관객을 끌어올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나 설치는 사실상 지금으로서 미술관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미술관이 아닌 어느 공간에 펼쳐져 있어도 보여줄 수 있는 곳들의 장르성이 있는데 회화라는 장르가 미술 기관에 들어올 때 그것을 기꺼이 미술관에 들여올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아우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이 큐레이터나 비평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전시를 끌어내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좀 남겨져 있는 숙제 같아요.

김윤옥 학예사: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그 시장에서 유효한 회화가 있잖아요. 이번에 키아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유효한 회화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회화가 어떤 이 미술계와의 관객에게 기능하는 지점들이 되게 다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의 작업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가질 수 있을지 또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관객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김세은 작가: 우리가 본 것을 놓고 말하는 글들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김윤옥 학예사: 그 언어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인 것 같아요.

최수정 작가: 회화 안에서 동시대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떤것을 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 회화 작업을 대하는 태도

윤수정 큐레이터: 회화 작가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점도 그런 부분인데요. 관람자들은 작품 안에서 볼 대상이 너무 많거나, 볼 대상이 없거나, 상상하고 추측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작가님들은 어떤 것을 보실까? 그런데 본다는 것이 굳이 시각성 뿐 아니라 심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작가님들은 어떤걸 보시고 작업을 하실까.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짧게 단어나 문장으로 대답이 가능하실까요?

김세은 작가님: 구조적으로 특정 공간을 경험하면서 발생하는 감각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되는 경험도 있고 사실 안되는 경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언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수정 작가님: 회화 매체 안에서 다루어지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포함하여 그 외의 다양한 맥락에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감정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존적으로 감각하는 현실, 관념적인 맥락, 혹은 관계에서도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속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시공간 안에 내가 위치한다는 것일 건데. 그것은 굉장히 실존적으로 감각되고 인지되는 것일 거예요. 살아가면서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그것들을 작품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저의 경우에 <無間_interminable nausea>라는 2015년도의 프로젝트에 담겨 있기도 한데, 대상과 나의 특수한 거리(간격없음)와 그 거리 안에서 느꼈던 현기증 같은 것들이 회화에서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회화의 이미지와 관객의 사이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도록 설치됩니다. 공간에 무간이라는 회화의 구조가 전시의 구조로 상동하게 확장되어 관객에게 지옥이자 열반인 無間의 '나와 대상의 거리 없음'에서 감각되는 심리적이고 동시에 물리적인 어지러움' 같은 것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저에겐 구조가 먼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작품을 진행하며 채워지는데 그것들이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구조 안에 자리잡기도 합니다.

김윤옥 학예사: 저는 안상훈 작가님의 작업 아까 흥미로웠어요. 지워지거나 지워져야 될 어떤 기억이나 시간성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다시 지워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안상훈 작가: 사실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김윤옥 학예사: 그런 과정도 그렇고. 그것을 공간에 실질적인 요소로 가져올 때, 갤러리 조선의 작업도 그랬고, 전반적인 작업이 흥미로웠어요. 명륜동 작업실에서 당장은 현수막을 가지고 시도해보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캔버스를 넘어서는 제스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안상훈 작가: 회화 작업이란게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지지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캔버스뿐만 아니라 비닐이나 현수막, 아크릴판, 합판 등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직접 벽이나 바닥, 벽과 바닥을 이어주는 부분, 가벽의 옆면이나 윗면, 모서리 등 전시설정과 환경에 따라 회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의 공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했지만 '사라졌거나 사라질 예정인 것' 또는 그 공간에서 '발생할 것 같은 것' 그런 것을 추출하거나 추상적인 요소들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윤옥 학예사: 한편으로 김세은 선생님의 작업은 그 전에 어떤 공간이라던지 장소라던지 선생님 일상에서 선생님에게 어떤 작업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관객이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꽤 있는 작업이었거든요.

김세은 작가: 네 조절하는 것을 즐기기도 했고, 중요시했었어요.

김윤옥 학예사: 충분히 그런 단서들로 관객이 개입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했는데 지금 작업은 관객이 조금 더 다가가기에는 추상성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추상에서 관객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지가 앞으로 생길지. 물론 그게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니지만요.

김세은 작가: 어떤 몸체를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런 바디로서 단서를 남기되, 그게 묘사가 되는 재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공간으로 인지하는 감각을 가져오려고 해요. 부피감이나 그 부피 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시간성, 이 덩어리를 얼마나의 속도로 제가 가져오는지를 계속 보고는 있는데 그 지점이 완전히 추상의 이미지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 자체가 공간으로 보이기 원해요.

김윤옥 학예사님: 저희도 그 회화를 볼 수 있고, 언어화 할 수 있는 언어 방법론이라던지 기획하는 방법론, 또 회화가 공간으로 설치적인 요소로 팽창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공간에서 좀 더 관객에게 일루전을 줄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는 미디어 대로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기술적인 언어들도 무한해지고 있어요. 회화도 마찬가지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대 회화가 또 전시장에서 기능하는 것이 예전과도 너무 달라졌지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도 잘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학력

- 2008 M.F.A. Glasgow School of Art, 글래스고, 스코틀랜드, UK
- 200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석사 졸업, 서울, 한국
-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 2019 현현_불, 얼음 그리고 침묵, 통의동 보안여관 신관, 서울, 한국 (서울문화재단지원)
- 2017 이중사고_Homosentimentalis, Makeshop Art Space, 파주 경기도, 한국
- 2015 無間 Interminable Nausea, SeMA 이머징 아티스트, 아마도예술공간/연구소, 서울, 한국 (서울시립미술관지원)
- 2013 확산희곡_돌의 노래, 삼일로창고극장, 서울, 한국 (서울문화재단지원)
- 2012 야반도주, 갤러리스케이프, 서울, 한국
- 2011 과거의 현재의 미래, 갤러리 차, 서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지원)
- 2010 No Man's Land, Kue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문화예술위원회, 베타니엔 지원)
- 2009 Parallel World; Twix Painting, Babel, Trondheim, Norway (LKV지원)
- 2007 무지개, 인사미술공간 기획 초대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 2004 무엇, 스페이스 셀,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0 [Re] Collect: 여성 작가 소장품전, 서울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손의 시간, 세화미술관, 서울, 한국
- 2019 깨어있는 꿈, 모란미술관, 경기도, 한국
- 2019 미디어의 장, 서울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8 서울시립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전 <디지털프롬나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 2017 파이널판타지, 하이트컬렉션, 서울, 한국
- 2016 Prologue, 메이크샵아트스페이스, 파주, 경기도, 한국
- 2016 호기심 상자 속의 원숭이, 신세계 갤러리, 서울, 한국
- 2015 YAP.The Twinkle World, Exco, 대구, 한국
- 2015 Intro_고양레지던시 입주작가 소개전, 교육동 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 2014 팔로우-미(八路友美), 난지 8기 리뷰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 2014 빛, 하정웅 콜렉션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 2014 Paint of View, 갤러리스케이프, 서울, 한국
- 2013 The Mirror and the Lamp, 신세계 갤러리, 서울, 한국
- 2013 Korea Tomorrow, 한가람 미술관,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
- 2013 Art Unforbidden, 아트베이징, 갤러리스케이프, Beijing, China
- 2012 여행가는 길, 모란 미술관, 경기도, 한국
- 2011 임동승/최수정 이인전, lee C gallery, 서울, 한국
- 2010 Re-entry, Loop Raum for aktuelle Kunst and Artist, Berlin, Germany
- 2010 As if You Know, Aando fine Art, Berlin, Germany
- 2009 Identity, Self Praxis Gallery, New York, USA
- 2009 The Open West, Cheltenham Art Gallery and Museum, Summerfield Gallery, Cheltenham, UK
- 2008 Artisit? McDonah Building, Galway, Ireland
- 2008 And So It Goes Art News Project Gallery, Berlin, Germany

레지던시/수상/선정

- 2018 서울문화재단 전시지원 기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 2016- 2017 Makeshop Art Space, 파주, 경기도
- 2015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지원기금,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 2015 MMCA 고양창작스튜디오 11기, 고양, 경기도
- 2014 SeMA 난지창작스튜디오 8기, 서울
- 2013 서울문화재단 전시지원 기금, 서울문화재단, 서울
- 2009 Kuenstlers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 2008. 12 - 2009. 1 Kunstnerverksteder Residency, Trondheim, Norway
- 2008 MFA NOW international painting competition 수상자. 뉴욕. 미국
- *Project Advisor, Judy Chicago, along with jurors Edward Lucie Smith, Nicolette Kwok, Victoria Lu, John Millei, Maura Reilly and Kay Saatchi
- 2008 The Open West, Selected Artist, Cheltenham, UK
- 2005 인사미술공간 작가성장프로젝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학력

- 2015 – 17 영국왕립예술대학 페인팅 석사, 런던, 영국
- 2008-13 이화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개인전

- 2020 잠수교, 금호 미술관, 서울
- 2019 핏맨의 선택,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18 POTHOLING, 말보로 갤러리, 런던
- 2015 SIDEWALK FOREST, 소피스트리, 뉴욕
- 2012 FEET OF INTEGRITY, 이븐더넥, 서울

단체전

- 2021 두산아트랩 전시 2021, 두산갤러리, 서울
- 2020 가볍고 투명한,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20 Season's Greetings: Peace, joy and love to 2020,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18 하루 한 번, 아트선재센터, 서울
- 2018 로비 머디 카펫, 2/W 위캔드, 서울
- 2017 TRAVERS SMITH CSR ART PROGRAMME 2017-2018, Travers Smith Art, 런던
- 2017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이트 컬렉션, 서울
- 2015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2015 PAPERBACK WRITER PAPERBACK ARTISTS, 공간 치웃, 서울
- 2015 자주 보던 숲, 갤러리 175, 서울
- 2014 라운지 프로젝트: 반 미터 위, 아트선재 센터, 서울
- 2021 명륜동 작업실, 캠퍼운데이션
- 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 2020 금호 영 아티스트 선정, 금호 미술관, 서울
- 2017 The winner of Valerie Beston Prize, The Valerie Beston Artists' Trust, 런던
- 2017 Selected for Travers Smith Art Programme 2017-2018, Travers Smith, 런던
- 2016 CAFÉ INTERNAZIONALE, 팔레르모, 시칠리아
- 2015 PAPERBACK WRITER PAPERBACK ARTISTS, 테이크아웃 드로잉 카페 레지던시, 서울

작품 소장

- 202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20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

학력

- 2014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마이스터슬러, 뮌스터, 독일
- 2013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 디플롬(아카데미브리프)졸업, 뮌스터, 독일
- 2002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0 특별한 날에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혼자 기다리지 않기 위해, 잊혀진 채로 남기 위해, 갤러리 조선, 서울
- 2018 올해의 입주작가전: 모두와 눈 맞추어 축하인사를 건네고, 인천아트플랫폼
내 신발이 조금 더 컬러풀 해, 갤러리 조선, 서울
- 2017 굿; 페인팅, 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인천
친절한 농담, 살롱 아터테인, 서울
- 2016 아스팔트 위에는 빵이 자라지 않는다, 크라이스미술관, 오스터부르크, 독일
캡슐 컬렉션, 아트스페이스 루, 서울
- 2014 이상한 집, 슈파카세은행, 갤젠키르헨, 독일

주요단체전

- 2021 매니폴드: 사용법 (Manifold Manual),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
꽃(Flowers), 뮤지엄헤드, 서울
-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청주시립대청호미술관, 청주
- 2020 빈 지속되는 언어, 샘표스페이스
부드러운 벽, 건조한 과일, n/a 갤러리, 서울
- 2019 어긋나는 생장점, 문화비축기지, 서울
안쓰_내일의 감각, 설치+사운드, 가변크기,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경기
수림미술상, 수림아트센터, 서울
- 2018 veni vidi vici, Plan B 프로젝트스페이스, 서울
이미지 속의 이미지,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 2015 5. 템펠호프 미술전, 템펠호프 미술관 갤러리, 베를린, 독일
- 2014 피더프라이스, 쿤스트랄레 뮌스터, 뮌스터, 독일
쿤스트페어라인 virtuell-visuell e.v., 도르스滕, 독일
- 2013 MALERNORMALEAKTIVITÄTEN, NRW 대표사무소, 브뤼셀, 벨기에
- 2012 작업의 성별, 갤젠키르헨 미술관, 갤젠키르헨, 독일
마인츠 미술상, 마인츠, 독일
- 2011 도중에-집에, 카우나스, 리투아니아
- 2010 NordArt, Kunstwerk Carlshütte, 뷔델스도르프, 독일
프로젝트
- 2019 SUMM-ER(숨 쉬는 사람), 혼합재료, 가변크기, 경기창작센터
솔로쇼(페이퍼) + 갤러리 조선, 서울
- 2018 오픈 윈도우 아뜰리에: 당신이 문을 통해 들어온 순간부터 당신이 떠날 때까지, 인천아트플랫폼
- 2017 당신을 위한 미술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수상

- 2022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 2021 캠파운데이션 명륜동레지던시
- 202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 2019 경기창작센터
- 2019 수림미술상 우수상
- 2018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 2017-18 인천아트플랫폼 8.9기, 인천
- 2017 올해의 입주작가상, 인천아트플랫폼
- 2015 쿤스트호프 다렌스테트 레지던시, 작센안할트, 독일
- 2015 작업지원금, 작센안할트, 독일

작품소장

- 202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 2020 수림문화재단

2021.11.26.-12.18

스페이스캔, 오래된집

주최, 주관

(사) 캔 파운데이션

기획

윤수정

글

김성희

정소영

윤수정

디자인

신덕호

사진

전병철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Volume, Light and Rhythm

Seeun Kim, Sanghoon Ahn, Sujung Choi

©사단법인 캔 파운데이션,

2021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작품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2021년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ISBN

979-11-97354-14-4

©CAN Foundation, 2021

Space CAN, Old House

Hosted by
CAN Foundation

Curator
Sujung Yoon

Text
Sunghee Kim
Soyoung Chung
Sujung Yoon

Design
Dokho Shin

Photo
Jeon Byung Cheol

Sponsor
Arts Council Korea,
ARKO Selection Visual Art

©CAN Foundation, 2021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can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the prior writing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This book was published
with the support of “2021
ARKO Selection Visual Art

2021년
명륜동 작업실 결과보고전
부피, 빛, 리듬

2021. 11. 26 – 12. 18

김세은 안상훈 최수정